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아닌 연대로

국민의당 호남 중진·동교동계 통합 반발...정책 연대는 본격화 “지방선거 승리 이끌만큼 파괴력 갖고 있지 않아” 부정적 전망도

최근 불거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론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드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통합론 대신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연대 성사 가능성마저도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호남 중진위원과 동교동계 고문단을 중심으로 당 일각에서 통합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안 대표는 26일 한 발 물러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의 가능성과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부담이 큰 ‘통합론’ 대신 ‘연대’ 쪽으로 한 발 뺐 것이다.

이날 진행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다수가 연대론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 정리됐다”며 정책·선거연대부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통합론은 정리됐다”며 “정책연대, 가치연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지도부나 의원들이 공감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른정당에서도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의원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속도를 빨리하자는 측면에서 양당이 공동 정책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당 간 정책연대 움직임은 본격화되는 모양새

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서 양당 의원들은 정책 연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포럼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더욱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 양당 간 정책 공조, 정책 연대에 있어서 큰 힘이 돼 주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새로운 국회 환경에서 양당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정리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 국회에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 취임 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당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당이 공조해 공동 입법 사안을 추진한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발휘해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양당이 중도 보수라는 가치에 있어서 맥이 닿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에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책 연대를 통해 중도 가치를 공유하고 향후 선거 연대로 나아가면 충분히 흥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연대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한 정치전문가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 되면 바른정당의 분열이 본격화되면서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자연스레 갈 곳 없는 의원들은 국민의당의 문을 두들기게 될 것인데 흡수면 모를까 양당 간 연대론이 지속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대 바람이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끌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총장 집무실을 예방한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표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안철수 “내가 독재적 발상? 의견 모아놓고 달리 결정하는 게 독재”

중진들 통합 논란 비평에 정면반박... “민주적 뜻 모은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당 중진 의원들이 논란 끝에 일단락된 통합론을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상황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결정하는 게 독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이날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된 ‘공정한 취업!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만남’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그런지(의견과 다르게 결정하지) 않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연석회의를 거쳐 ‘연대 우선’으로 결론 낸 만큼 자신은 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것이다.

그는 ‘바른정당과의 연대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또 중진 회의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 정책연대를 거쳐 선거연대까지로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며

“진체적인 과정들이 다 민주적으로 뜻을 모으고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진 일각이 통합론으로 내홍을 일으켰다며 자신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 아니냐”라며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로 간의 견해를 나누고 결론을 내고 그런 것이 정상적 정당”이라고 ‘내홍’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안 대표는 추내 결론을 짓기로 한 시도당·지역위원장 일괄사퇴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우리 당의 내년 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될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바른정당과 통합 영원히 물 건너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열흘 만에 소강 국면을 맞은 데 대해 “당장은 그렇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갈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다만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다”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양

대표가 향후 통합을 재차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통합 추진부터 내용 봉합까지의 과정에서 안 대표 리더십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 가지고 당 중의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라며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라남도 전서부스에서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우원식, 洪 자체 핵무장론에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 부끄러워”

“도를 지나치고 외교적 혼선 초래 무책임 발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 방문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대해 “당은 다르지만 같은 시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이당 당대표의 방미를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

았으나 도를 지나치고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홍 대표가 미국에서 한발을 듣고 명색이 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다. 국정감사 와중에 외국에서 별인 일을 한 정부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외교적 혼선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한심하다”고 했다.

그는 “외국을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부닥뜨리는데 앞으로 나가더라도 이중주에하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외교협회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자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설 의지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